

	베트남(하노이) 해외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결기소장
		일시	2024. 2.

CEPA Insight

- 베트남 수출액 최근 2년 중 최고치 기록
- 2024년 초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치 증가세
- 베트남 규정 '뗏' 맛이 기간 중 생활 물가 강한 감소세

▣ 베트남 수출액 최근 2년 중 최고치 기록

- 베트남 산업통상부의 자료에 따르면, 2024년 1월의 수출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38% 상승하여 64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 수출액만으로는 42% 상승하여 약 33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2022년 4월 이래 최고치임.
- 베트남의 수출액 증가는 농림수산업 부문의 수출액 증가 97%, 가공업 부문의 수출액 증가 38%가 견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. 농산품의 수출액 증가는 커피, 쌀 등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확인되었음. 커피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35%, 쌀 가격은 33.5% 상승하였음. 휴대폰 및 관련부품의 수출액은 약 60억 달러를 달성하였는데, 이는 전월대비 56% 증가한 수치이며, 삼성의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4 출시로 인한 결과임.
- 기존과 동일하게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입국으로,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96억 달러를 기록하여, 전년동기 대비 약 56% 증가하였음. 이밖에도 대중 수출액은 58%, 대EU 수출액은 18%, 대아세안 수출액은 38%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.

- 한편,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올해 베트남의 수출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의 무역 경쟁 전략이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점, ‘홍해 물류대란 등 물류비 상승을 유발하는 요소가 현재에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향후 마주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, 관련당국, 정부 기관에 베트남 기업들이 변화에 대처하고, 회복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제거할 것을 요청하였음.

☞ [관련기사 링크 클릭](#)

■ 2024년 초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치 증가세

- 2024년 초, 1월 20일까지의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치액은 23.6억 달러로 지난 2023년 동기대비 40% 이상 증가하였음.
-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, 2024년 초 베트남이 유치한 신규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하여 신규 프로젝트 수는 24% 증가하였으며, 그 중 하노이 시 서쪽의 주거지역 개발 프로젝트는 6억6천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.
- 외국인직접투자 중에는 부동산 관련투자가 12.7억 달러로 53.9%를 차지하였고, 제조업이 9.26억 달러로 39.2%로 그 뒤를 이었으며, 과학 기술, 도·소매 관련 업종에서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.
- 총 39개국이 베트남에 투자하였는데, 싱가포르가 14억 달러로 1위, 59.5%를 차지하였으며, 이는 전년동기 대비 72.8% 증가한 수치임. 일본이 2억 9천만 달러로 2위, 12.6%를 차지, 이는 전년동기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임. 이밖에도 사모아, 중국 본토, 홍콩 등이 주요투자국에 올랐음.

- 대규모 부동산개발프로젝트의 추진으로 하노이 시가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(FDI)의 36.7%를 차지하였으며, 이어서 바리아-붕따우, 박장, 박닌, 동나이 지역이 뒤를 이었음. 특히 호치민 시에 위치한 신규 프로젝트 수가 가장 많았음.
- 지난 2023년 베트남이 유치한 외국인직접투자(FDI) 총액은 3666억 달러였으며, 이는 2022년 대비 32% 증가한 수준이었음. 베트남은 올해도 이전과 같은 FDI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, 2024년은 베트남에서 글로벌 최저한세(GMT, Global Minimum Tax)가 처음 적용되는 시점이므로 여러 변수가 있어, FDI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우려해 베트남 국회 및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 및 해결책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☞ [관련기사 링크 클릭](#)

■ 베트남 구정 ‘땃’ 맞이 기간 중 생활 물가 강한 감소세

- 최근 베트남 구정 땃(Tet) 맞이 기간 중, 베트남 시장 내 약화된 구매력에 비해 증가한 공급량으로 인해 채소, 생선, 육류 등의 생활 물가가 전년 대비 10%~50%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이 베트남의 여러 전통시장 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채소의 가격 하락세가 가장 강했는데, 구체적으로는 상추, 양갓냉이 등의 가격은 올해 25,000 동 ~ 35,000 동으로 전년 동기 가격은 40,000 동~ 60,000 동이었음. 토마토, 오이, 파와 같은 채소 가격은 Kg 당 20,000 동 ~ 40,000 동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~50% 낮은 가격대를 보였음. 락교, 파파야, 순무 등 곁들임 채소류의 경우, 매년 50,000 동 ~ 100,000 동의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는 데에 반해, 올해는 50% 정도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음.
- 한편, 돼지고기, 소고기, 닭고기 등 신선식품의 가격은 전년대비 5~20% 하락했음. 돼지고기 삼겹살의 가격은 160,000 동에서 120,000 동

~ 140,000 동으로 하락, 닭 날개, 닭다리의 가격은 60,000 동 수준으로 15,000 동 가량 하락했음. 토종닭의 경우, 120,000 동 ~ 140,000 동으로 5% 하락했음. 흰다리새우, 흰징거미새우 또한 가격이 20% 하락하여 Kg당 140,000 동 ~ 200,000 동의 가격대를 이루고 있으며, 도미, 가물치와 같은 생선류 또한 전년동기 대비 Kg당 5,000 동 ~ 10,000 동 정도 하락했음.

- 최근 베트남 내 생활물가가 하락한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,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량은 증가한 데 비해,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약화되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관계자에 따르면, 2023년 말 베트남에서 사육 중인 돼지 마리 수는 3천만 마리로 2022년 말 대비 4% 증가하였음. 이외에도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전쟁, 전염병 발생 등이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한 것 또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

☞ [관련기사 링크 클릭](#)